

# 왕궁축사 매입 신청 목표량 초과

### 새만금 수질 개선·악취 저감 등 탄력... 신청 늦어지면 연내 보상 어려워

왕궁 지역 축사매입이 올해 목표량을 세달만에 초과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새만금 수질 개선을 포함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목표량을 조기에 초과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전북도와 익산시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왕궁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이 매입신청서 접수 세 달 만에 매입목표인 1만 6,000㎡를 초과한 49개 농가 4만 4,000㎡(9일기준)가 접수됐다. 또한 우편으로 통보된 타 지역 거주 축사 소유자들의 매입 신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청에서 매입하는 현업축사 또한 매입신청서 접수 한 달만에 올해 매입 목표의 83%에 달하는(매입목표 5만 5,000㎡ 중 4만 4,000㎡ 매입) 축사가 매입돼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왕궁 지역 악취 해결 등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빠르게 매입이 이뤄지는 이유는 왕궁 축사 매입 사업이 역점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2018년 3월) 종료 후 대대적 단속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왕궁 지역 축사 농가 사이에서는 매입 신청이 늦어질수록 후순위 접수가 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내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를 희망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현재 익산시는 조기 목표량 초과에



“탄소법, 당 차원 적극 지원율”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서울 국회를 방문하여 박원주(더민주당), 김도읍(새누리당), 김관영(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고 있는 모습.

다른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시의 재정 지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저렴했던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를 올해 하반기 이후 원인가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예산을 확보해 올해 매입한 축사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매입 신청자들을 모두 연내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의 현업 축사매입 사업은 올해 확보된 100억원의 국비를 거의 소

진해 내년에 150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왕궁축사단지 환경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매입 사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익산시는 순환립 조성 및 익산천과 주교제 생태복원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0월까지 축사 6만 3,000㎡ 철거를 완료하고 수복식재를 통한 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류 등으로 악취가 진동했던 주교제는 올해 상반기에 오토 제거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생태습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익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사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매입된 토지는 지역 휴식공원 및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왕궁은 기존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혐오·기피마을에서 벗어나 백제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 공장 스마트화 지원

### 투자비용 5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북도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도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는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도 및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 제조공장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 ‘제품개발지원’,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의거해 투자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억원(분야별 정산 후 신청, 분야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투자협약 절차가 필요 없고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방법은 기업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도에서 기본 요건확인 및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후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현장 평가 및 기술능력을 평가한 뒤 산업부에 결과를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도 전혜성 투자유치과장은 “10여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분석 홍보하는 등 적극 추진해 올해 말까지 30개 업체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육군, 평가 방법까지 바꾸며

### ‘성능미달’ 훈련 장비 도입

### 감사원, 마일즈 등 8건 감사결과 시행... 육본 재심의 청구

육군이 시험평가를 생략하거나 평가방법까지 바꿔가면서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하는 훈련장비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방산비리 기동 점검에 나선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 11월 중대급교전훈련장비(통칭 마일즈) 개발 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5월 A사로부터 시제품을 제출받았다. 마일즈는 훈련용 공포탄을 쏘면 레이저를 발사함으로써 센서를 통해 명중 여부를 판독해 이같은 정보를 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A사의 시제품이 나온 이후 수차례 시험평가가 중단·보류되는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되는 바람에 2년 여가 지난 2013년 12월에야 1차 양산계약이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의 마일즈는 군의 3차 운용시험평가 당시 공포탄 발사 교차 비율이 소총 종류별로 86.9~92.8%에 불과해 100±1%인 군 요구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도 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적당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이미 2014년 9월 152억 원 어치 물량이 납품됐으며 2019년까지 800억원 물량이 도입될 예정이다.

육군은 또 103억원을 주고 B사에 개발을 맡긴 기계화부대의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과 관련해 전차나 장갑차의 위치·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통신접속 상태만 테스트하는 것으로 시험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은 개발사인 B사를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임명하고 해당 시스템의 핵심성능인 ‘전차표적기 자동운용시스템’이 요구성능에 미달했지만 수동운용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업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고 해당 장비의 성능보안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육군본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박용주 기자

## 전북 친환경 인증면적 2020년까지 두 배로

### 도,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 4개 분야 3958억 투자... 매출액 1.5배 이상 목표

전북도가 소비자 신뢰를 기반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도 현재의 1.5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1일 전북도는 ‘전북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2015년 기준 경지면적대비 3.2%(6,568ha) 수준인 친환경 인증면적을 2020년까

지 6%(12,200ha)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문유통조직을 6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동시에 매출을 550억원(2015년 매출 34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14개 시·군에 구축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화학자재(화학비료, 농약)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분야 6개사업에 502억원을 포함해 친환경농산물 소득안정분야 15

개 사업 874억원,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분야 4개 사업 452억원, 화학자재 사용감축을 위한 농업환경개선 분야 5개 사업 2,130억원 등 총 4개 분야 30개 사업에 3,95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사업으로는 생산기반 확대분야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25개소, 친환경 쌀단지 27개소, 유기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개소 등이며 유통·소비 활성화 분야로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 15개소,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사업, 학교급식센터 구축확대, 친환경 농업인단체 육성 등이다.

이어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국·도비 직불금과 친환경 인증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화학자재 사용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1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과 전북친환경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턴트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